

천변 풍경(교재 외)

* 시골서 올라온 아이(창수)

소년은, 자기가 대답할 수 있기 전에, 아버지가 대신 말하여 준 것이, 또 불평이었다. 열네 살이면, 처음 보는 이 앞에서도 능히 그러한 것을 제 입으로 대답할 수 있다. 어른이 대신 말하여 줄 때, 모르는 이는 아이가 똑똑지 못한 것같이 잘못 알지도 모른다. 그는 광대 뼈가 약간 나온 주인 영감의 옆얼굴을 곁눈질하며, 만일 이름을 묻거들랑, 아버지가 채 무어라기 전에, 얼른,

“창수예요.”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정신을 바짝 차렸던 것이나, 주인 영감은 얼굴뿐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구장 영감을 닮아 심술궂은지, 슬쩍 그러한 것을 좀 물어 주는 일도 없이, 조금 있다,

“문간에 나가 구경이래두 허렴. 어디 머언 데는 가지 말구…….”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만 무슨 은근한 이야기 가 있으려는지, 새로이들 권연을 피워 물었다.

소년은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신기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가평이 아니라 서울이다.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다. 아무리 시골서 처음 올라온 소년의 마음이라도,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우 수 없고, 또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 ‘천변 풍경’이, 오직 이곳이 서울이라는 그 까닭만으로,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또 신기하였다.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쉴 사이 없이 세 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가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펍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쓰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욕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절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 가 뒹굴고, 그러는 각정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줄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옹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이가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가,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다. 시골 아이야.”

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떡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가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빼안히 저를 치어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붙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싶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 가지고 마음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는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

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가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년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가는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도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펍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년이, 그렇게, 서울에서의 자기에 대하여, 눈곱만한 자신도 가질 수 없을 때,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하룻밤이라 같이 묵어 주는 일 없이, 그대로 무자비하게도 자기의 불일만을 보려, 영등포라나 어디라나로 떠나 버렸으므로, 어린 창수는, 대체, 혼자서, 이제, 어찌하여야 좋을지, 끝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야, 아버지는, 내일 아침 가평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한약국에를 들르마고,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나, 그까짓 것이 그의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 얼마 있다, 주인 영감이 ‘피죤’ 한 갑 사 오라고 한 장의 일 원 지폐를 내주었을 때, 담배 가게가 어디 가 붙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모르는 창수는 고만한 심부름에도 애가 쓰였다. 돈을 두 손으로 받아 들고 밖으로 나오는 그의 등에다 대고, 주인 영감은 생각난 듯이 한마디 하였다.

“너, 담배 파는 데, 아-니?”

“네-.”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하고, 또 얼굴을 붉히며, 천변에 나와, 대체, 어디로 발길을 향하여야 좋을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을 때,

“너, 심부름 가니?”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가 그저 앉아 있는, 아까 그 아이가 말을 또 걸어, 그래,

“응.”

하고 대답하니까,

“뭐어? 무슨 심부름?”

“담배.”

하니까, 마음씨는 착한 아이인 듯싶어,

“저-기, 배다리 가게서 판다.”

일려 주는 그 말이, 이 경우의 창수에게는 펍 고마웠다.

*경성부 회의원이 되고 싶은 민 주사

[전제 줄거리] 이뿐이 어머니, 점룡 어머니, 귀돌 어머를 비롯 한 동네 아낙네들이 청계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며 잡담을 하고 있다. 이발소 사환인 재봉이는 사춘기 소년으로 손님이 없을 때 이발소 창밖으로 천변 남쪽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 그의 눈에 비친 주된 인물은 주인과 민 주사이다. 종로 은방 주인은 순박한 시골 처녀를 서울로 유인해 온 금점꾼 여급에게 돈을 주어 환심을 사려고 한다. 창수는 시골 소년인데, 갓 서울에 올라와 한약국에 취직한다. 피가 많아서 도시의 풍물을 곧잘 흡수하며 금방 서울아이가 되어 간다. 세상에서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민 주사는 주색잡기에 골몰하는 속인으로 권력욕이 있어서 경성부 회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을 하고 노름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첩 안성 덕이 젊은 학생과 놀아나는 것 때문에 속을 썩는다. 아이스케기 장수 점룡이가 사랑하는 이뿐이는 천변 사람들의 추복 속에 결혼했으나 곧 호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바람 때문에 애를 태우고, 결국 친정으로 찾아와 어머니와 함께 울음을 터뜨린다. 외간 남자에게 속아 서울로 올라온 금순이는 하나코와 기미코의 도움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고 동생 금둥이와도 재회한다. 하나코는 양반집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녀 역시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뿐이는 근화 식당에서 점룡이가 이뿐이 애기를 꺼내는 바람에 남편에게 쫓겨나 어머니에게 돌아오고, 포목전 주인의 모자가 바람에 날쳐 개천에 떨어진다.

민 주사는 요사이 마음이 우울하였다. 기술이 남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손속이 없다는 수밖에 없을 것이나, 아무리 없다고로서니 그렇게 나지 않는 손속이라는 것도 참말 드물 것으로 마작, 마작 노름에 그가 저온 돈이, 올해 들어와서만도, 사오백 원이 착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그다지 우울하지 않아도 좋았다. 요즈음에 이르러, 그것은 또 어찌된 까닭인지, 그렇게 죽어라고 없던 손속이, 갑자기 부쩍 나서, 며칠을 두고 내리 혼자서 장을 치는 통에 어떻게 이대로만 계속이 된다면, 잃었던 것 웬만큼은 회수가 되려니 하고, 은근히 속으로 좋아하였던 것도, 그러나 잠시 동안의 일이요, 일껏 난 손속에 그저 잠자코 붙들고만 앉았으면, 그대로 수을술 돈이 들어올 것이 빠란한데도, 그것을 아깝게 못하고, 이제 얼마 동안은 마작을 손에 대지않기로, 그렇게 마음먹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민 주사에게는 더욱이 속상할 일이었던 것이다.

늙은 마누라가

“여보, 영감. 글썄 그 장난을 왜 허슈? 제발 좀 삼가세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는데 저 우대서 신사 도박단

이 잦혀갔답디다그려. 그래, 그게 남의 일 겐소? 혹시 으쁜 놈이 경찰서에다 고발이나 한다면, 대체 그런 욕이 어디 어딴수? 또 고발을 앓기루써니,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허면, 또 누가 모르겠소?”

하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물론 그 말은 신기한 말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까지 몇 번이고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것이요, 또 거기에는 집에는 붙어 있지 않고, 밤낮 첩에게만 가 있는 영감에게 대한, 이른바, 본마누라의 강짜가 분명히 들어 있던 것이라, 민 주사는 가만히 코웃음으로, 그냥 딴 때나 한가지로 흘려들으려 하였던 것이나, 문득 그 뒤를 이어 마누라가 또 한 마디,

“혹시 그런 변이래두 있다면, 망신두 망신이려니와, 일꾼 회의원 된단던 것두, 그만 틀리구 말게 아니유?”

하고 말하자 민 주사는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자신 그러한 것을 은근히 염려한 일이 없지 않아 있던 터이라, 이제 또 마누라의 입에서까지 그러한 말을 듣고 보니, 그만 마음에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그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리, 이를 테면 이번 경성부 회의원 선거전에, 자기와 함께 출마하려는 다른 후보자들의 운동원이라든 그러한 것들이 자기가 그저 소일삼아 하는 장난을, 무슨 크나큰 일이나 되는 것 같이, 경찰서에도 참말 밀고라도 한다면, 모처럼의 자기 희망도 그대로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 빨래터에서의 칠성 아범과 샘터 주인의 대화

해 뜨고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다. 빨래터 위 골목 모퉁이 집 문간 옆에 기대어 놓인 쓰레기통 위에 샘터 주인은 올라앉아서, 옆에 서 있는 칠성 아범과 한가로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요새 금값이 자꾸 올라간다는군그래.”

곰방대를 빼어 물며, 민 주사 집 행랑아범이 하는 말.

“그저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돈 벌어먹기루 마련된 세상이지.”

보기 좋게 가래침을 탁 뱉고, 빨래터 관리인이 하는 말.

“하여튼, 새면 둘러봐야 금점꾼이로군그래. 그저 금광 거간…….”

“아, 그게 헐 만허니깐 그렇지. 어떡허다 꿈이나 한번 잘 꾸어, 노다지나 하나 얻어걸리는 날엔, 최쟁액이 부

럽지 않으니까…….”

“허지만, 그것도 얼마간 밑천이래두 있어야 말이지. 그저 경쟁쟁이루야 말이 되나? 뭐, 등기만 허는 데두 백여 환이 든다지 않아?”

“그러기에 없는 사람은, 또 수단대루 거간이래두 해서, 그저 매매 계약 하나만 되면 몇 백 환씩 구문이 생기니…….”

“그저 불쌍허긴, 돈 없구 수단 없구 헐 우리지……. 넌 장철 돈 한 가지 있담야 지금 세상에 정승 판서 부릴 거 있나?”

“웁은 말야.”

샘터 주인은 까칠까칠한 구레나룻을 억센 손가락으로 쓱쓱 비비며 잠깐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래두 여보. 당신은 우리한테다 대면, 갑부유, 갑부야.”

“아니, 내가. 그래, 갑부라니?”

“뭐, 석일 것 없어. 내, 다 알구 있는데……. 그동안 돈이나 착실히 댔다는데그래?”

“내가? 온, 참. 그래, 남의 집에 살며, 쥐꼬리라 타는 돈으루, 그래 설혹 봐지면, 얼마나 봐지겠수?”

“그래두 괜찮다던데그래? 더구나, 올엔 또 운수가 터져서, 공돈이 이백 환이나 들왔으니, 그건 또 얼마야?”

“뭐, 게 탄 것 말야? 공돈이 다 뭐야? 그동안 얼마 내 왔다가?”

“얼말 내 오긴, 고작, 한 이십 환밖에 더 댔어? 그러구 열 곱절을 먹었으니…….”

“아따, 남의 말만 허지 말구, 자기 생각을 해 봐. 뭐니 뭐니 해두 우리에게다 대면 참 상팔자지. 그저 팔짱 끼구 앉았으면 먹을 게 쑥쑥 들오니…….”

“아니, 내가 뭐, 버는 게 있어서? 빨래라야 그저 여름 한철이지. 그것두 이제 장마나 지면 다 쓸려 내려가 구……. 흥! 그야말루 오 전 십 전 빨래 값 받아 가지 구 해마다 세금 바치려면 찢찢매는 판인데…….”

그리고 그는 잠깐 말을 끊었으나, 칠성 아범이,

“허지만…….”

하고, 또 이의를 제출하려는 기색에, 그는 즉시 말을 이어,

“더구나, 소문을 들으면, 뭐 청계천을 덮어 버린단 말이 있지 않아? 위생에 나쁘다던가……. 그러니, 정말 그렇게나 되구 본댐야, 인제 삼순구식두 참 정말 어려울 지경이니……. 흥! 말두 말어!”